

王好古의 藥物 및 傷寒理論에 대한 研究

趙炳日·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醫史學教室

A study about WangHaogu's medical stuffs and theory of Shanghan

Jo Byoung Il, Kim Yong Jin*

Daejeon Universit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ep. of Medical History

Wang Hao Gu is a famous Chinese medical scientist of the 13 century. He studied the oldest classic in China, Huangjaenaekyung, and also studied Zhangzhongjing's medical documents. He was influenced by contemporary medical scientists Zhang Yuan Su and Li Dong Yuan, and came up with an original medical theory Yinzheng. Although he is of considerable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medicine, not many studies on him were done in Korea although Korean medicine was influenced by Chinese medicine. This study focuses on the study of his insight on medical stuffs and theory of Shanghan.

Key Words : Shanghan, WangHaogu, Yinzheng

I. 서론

王好古는 金元時代 易水學派의 著名한 醫家中의 한 사람이다. 그는 『內經』에 정통하고 仲景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張元素와 李東垣의 학문을 계승 받아 發展시켰고 자신의 豊富한 臨床實踐과 結合하여 陰證學說을 창립하였으며, 張元素의 藥物理論을 더욱 발전시켜, 後世 醫家에 대하여 큰 影響을 준 사람이다. 이와 같이 한 의학의 發展史上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王好古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王好古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그의 藥物理論과 傷寒理論에 대하여 연구하여 얻은 바를 보고하는 바이다.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학대학 의과학교실 042-280-2626
E-mail : king@dju.ac.kr.

1. 藥性理論의 發展

王好古는 本草를 研究함에 있어 湯液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世皆知素問爲醫之祖 而不知軒岐之書 實出於神農本草也 殷伊尹用本草爲湯液하고 漢仲景廣湯液爲大法하니 此醫家之正學이오 雖後世之明哲有作이라도 皆不越此라” 고 하였다. 따라서 그가 『湯液本草』를 著述하기 위하여 『神農本草經』과 『內經』, 『傷寒論』 등 經典의 奧旨를 연구하고 陶宏景, 張潔古, 李東垣 등 諸家の 論說를 참조하였으며 系統的으로 金元以前의 藥學經驗을 總結한 基礎上에서 藥性的 理論을 探討하고 藥物의 功效와 藥物의 性味, 形色, 質地와 臟腑經絡 및 四時 등을 서로 聯系시켜 完전한 藥學理論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王好古의 藥物에 대한 理論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커다란 影響을 주어 李時珍의 『本草綱目』에도 王好古의 藥物理論을 많이 흡수하여 기록하였

다.

1) 用藥法則에 대해 總結함

藥物에는 五味가 있고 五臟은 苦欲이 있으며 藥物의 五味特徵은 人體의 五臟에 대하여 不同한 補瀉作用을 한다. 王好古는 『素問·藏氣法時論』의 ‘五臟苦欲補瀉’의 내용을 근거로 五味와 五臟을 五行學說에 결합하여 『湯液本草』에 『五臟苦欲補瀉藥味』篇을 記述하여 專門的으로 臟腑用藥의 五味補瀉를 討論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用藥의 法則에 대하여 總括하였다. 그는 스승인 張潔古의 『醫學啓源』에 나오는 五臟苦欲補瀉法에 대한 부분을 약간 정리하여 “肝苦急하니 急食甘以緩之니 甘草오 欲散하니 急食辛以散之니 川芎이오 以辛補之니 細辛이오 以酸瀉之니 芍藥이오 虛以生薑陳皮之類補之라 心苦緩하니 急食酸以收之니 五味子오 欲軟하니 急食鹹以軟之니 芒硝오 以鹹補之니 澤瀉오 以甘瀉之니 人參黃茂甘草오 虛以炒鹽補之라 虛則補其母니 木能生火하고 肝乃心之母니 肝木也하니 以生薑補之오 如無他證하면 錢氏安神丸主之라 實則甘草瀉之오 如無他證하면 錢氏方中重則瀉心湯하고 輕則導赤散이라 脾苦濕하니 急食苦以燥之니 白朮이오 欲緩하니 急食甘以緩之니 甘草오 以甘補之니 人參이오 以苦瀉之니 黃連이오 虛則以甘草大棗之類補之라 肺苦氣上逆하니 急食苦以瀉之니 桑白皮오 以酸補之니 五味子오 虛則五味子補之하고 如無他證하면 錢氏阿膠散補之라 脾乃肺之母니 以甘草補脾오 實則桑白皮瀉之라 腎苦燥하니 急食辛以潤之니 知母黃柏이오 欲堅하니 急食苦以堅之니 知母오 以苦補之니 黃柏이오 以咸瀉之니 澤瀉오 虛則熟地黃柏補之라 腎本無實可瀉하니 錢氏有補腎地黃丸이라” 고 하였다. 그는 五臟에 病變이 발생하면 補虛瀉實의 方法으로 治療해야 하고 適合한 五味로써 相應하는 五臟을 補瀉하여야 한다고 하여 藥物의 治療效果를 더욱 높이는데 공헌을 하였다.

2) 歸經學說을 豊富하게 함

歸經理論은 藥物의 作用과 臟腑經絡과의 關係를 結合하여 어떠한 藥物이 특정 臟腑經絡의 病變에 대하여 一定한 治療作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藥物의 特殊作用을 알면 治療效果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藥物의 歸經說은 劉完素의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도 이미 四物湯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니 熟地黃은 腎經에 川芎은 肝經에 赤芍藥은 脾經에 當歸는 心經에 歸經한다고 기록하였으나 완전한 理論體系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王好古의 스승인 張潔古는 『珍珠囊』에서 藥物의 歸經理論을 더욱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藥物의 引經體系를 건립하였다. ‘引經’이란 어떠한 藥物이 다른 藥物들을 인솔하여 病所에 이르게 하는 向導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引經報使’, ‘引子’, ‘引藥’이라고도 한다. 李東垣은 『用藥心法』에서 升麻, 柴胡, 白芷, 石膏, 葛根, 青皮, 知母, 藁本, 羌活, 芍藥, 黃柏 등의 引經報使藥을 소개하였다.

王好古는 張潔古 李東垣의 藥物理論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藥物의 歸經方面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험과 주장을 결합하여 『湯液本草·臟腑瀉火藥』에서 同一한 瀉火藥이지만 “黃連瀉心火하고 黃芩瀉肺火하고 白芍瀉脾火하고 柴胡瀉肝火膽火하고 知母瀉腎火하고 木通瀉小腸火하고 黃芩瀉大腸火하고 黃柏瀉膀胱火하고 柴胡瀉三焦火하고 石膏瀉胃火라” 고 하여 藥物마다 특별하게 일정한 經絡臟腑에 커다란 作用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여 藥物의 歸經理論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歸經學說은 현대의 입장에서 腦血管病變으로 인한 頭痛과 眩暈症에 藁本과 蔓荊子를 使用하여 藥效가 巔頂에 이르게 하는 것과 肝炎과 肝硬化에 柴胡를 使用하여 藥效가 肝에 집중하게 하는 등의 事例로도 效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歸經學說이 藥物에 대하여 論述하는 重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후세의 醫家들도 자신의 著書에 藥物의 歸經에 대하여 記錄하기도 하였다.

3) 藥物의 새로운 效果를 主張함

王好古의 藥物에 대한 論述은 비록 『神農本草經』과 張仲景의 藥物理論과 張潔古와 李東垣 등의 스승의 理論의 바탕위에 자신의 豊富한 臨床經驗을 결합하여 새로운 견해들을 많이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柴胡에 대하여 그는 本草와 諸書의 論述들을 記錄한 외에 또한 張潔古의 『珍珠囊』의 말을 인용하여 “去往來寒熱과 膽瘕에 非此면 不能除라” 고 하였고 東垣의 말을 인용하여 “能引清氣而行陽道라 傷寒外諸藥所加는 有熱則加之하고 無熱則不加라 又能引胃氣上行升騰而行春令이 是也라” 고 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그 자신의 臨床經驗으로 얻은 見解로 “能去臟腑內外俱乏이라 既能引清氣上行而順陽道하니 蓋以少陽之氣는 初出地之皮爲嫩陽이라 故以少陽當之라” 고 하여 清氣를 상승시키는 作用이 있으니 少陽病에 사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附子의 사용에 대해서도 心得이 있어 引潔古가 『珍珠囊』에 말한 “治脾濕腎寒이라” 와 東垣이 『藥類法象』에서 말한 “性走而不守하고 亦能除腎中寒甚이라 白朮爲佐하면 名朮附湯하니 除寒濕之聖藥也라 濕藥中

少加之하면 通行諸經引用藥也라” 고 論述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經驗을 總結하여 “入手少陽三焦命門之劑하여 浮中沉無所不至라 附子味辛大熱하여 爲陽中之陽이라 故行而不止하니 非若乾薑이면 止而不行也오 非身表涼而四肢厥者是 不可僭用이라 如用之者是 以其治四逆也일새라” 고 하였으며 즉 附子は 辛熱하여 ‘行經而不止’ 하므로 病이 비록 裏寒하지만 身과 四肢가 모두 熱이 있어 身涼 혹은 厥逆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만약 이때 附子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昏冒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止而不行’ 하는 乾薑으로 溫中하여 치료하는 것이 適合하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身熱이 變涼하고 内外가 모두 寒한 상황에서 乾薑과 附子를 함께 사용하여 溫中行經하여 内外의 陽氣를 생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藥物學에서 말한 “乾薑守而不走하고 附子走而不守라” 의 論述에 부합되는 것이다.

4) 服藥方法을 중요시함

王好古는 服藥方法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內經』에서 提出한 “平旦人氣生하고 日中而陽氣隆하고 日西而陽氣已虛하니 氣門乃閉라” 는 人體의 陽氣가 晝夜의 節律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擇時服藥의 方法을 探索하고 研究하였다. 그는 “假令附子與大黃合而服之할새 晝服則陽藥成功多於陰藥하고 夜服則陰藥成功多於陽藥하니 是從其類也라 況人之疾이 獨不然乎잇가 若病陽證은 晝則增劇하고 夜則少寧하며 若病陰證은 晝則少寧하고 夜則增劇이라 是人之陰陽寒熱이 從天地之行陰行陽也오 寒熱之化가 以此隨之라 故前人治陰證用陽藥續於夜半之後者是 所以却類化之陰而接身與子所生之陽也라” 고 하였다. 여기서의 陽證은 表證, 熱證, 實證의 總括이며 陽藥은 또한 氣輕, 味薄, 性溫熱한 藥物의 統稱이다. 그리고 陰證과 陰藥은 각기 이와 相反되는 모든 證候와 藥物을 말하는 것이다. 王好古의 이 論述은 方藥의 性質에 따라 相應한 人身의 陽氣 혹은 陰氣가 스스로 旺盛해지는 周期를 선택하여 가장 적합한 服藥時間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陽藥은 낮에 복용하고 陰藥은 밤에 복용해야 한다는 擇時服藥法을 설명한 것이다. 근래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時間藥理學은 時間生物學으로 人體의 生理와 病理活動中の 晝夜節律性 變化를 揭示하여 가장 적합한 用藥時間을 선택하는 服藥方法이다. 이는 王好古가 창립한 擇時服藥方法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王好古는 特殊한 服藥法도 많이 倡導하였는데 예를 들면 “凡投性熱藥은 皆須冷服이라” 는 熱藥冷服方法을 제시하였고 “內有伏陽則可라 若脈已虛하여 按之全無力하고 或病人素無所養하면 只可溫服이라 不然陰氣必不

能醞釀回陽하니 利害非輕이라” 고 인식하였다. 또한 湯沐法(外接法)도 소개하였는데 즉 病人이 服藥하여 出汗시키려면 蔥白으로 煎漿하여 湯을 만들어 沐四肢하면 陽氣를 얻는데 效果의다고 하였다.

5) 飲食調養을 중요시함

王好古는 『湯液本草』에서 『內經』의 “穀肉果菜를 食養盡之라 無使過之니 傷其正也일새라” 는 要旨에 따라 藥療와 食療의 關係를 정밀하게 論述하였다. 그는 藥物은 攻邪에 사용하고 藥物의 사용은 適度해야 하며 藥力이 太過하면 오히려 사람의 몸을 傷害할 수 있으며 食物은 精氣를 補益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藥物은 모두 一定한 偏性을 갖고 있으므로 오직 人體가 陰陽의 偏頗가 있어 生病할 때 藥物은 비로소 以偏治偏하는 作用으로 祛邪治病의 作用을 할 수 있다. 만약 邪氣가 基本的으로 없어지고 調理할 필요가 있을 때는 藥物을 사용하는 것보다 穀肉果菜 등 氣味가 平正한 飲食으로 精氣를 補益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湯液本草』에 專門의으로 「五宜」, 「五傷」, 「五走」 등 篇을 記述하여 飲食의 宜忌에 관한 問題를 討論하였다. 그중 「五宜」는 飲食五味와 五臟의 相宜에 대한 論述으로써 예를 들면 “肝色青하니 宜食甘하니 粳米 牛肉 棗 葵皆甘이라 心色赤하니 宜食酸하니 犬肉 麻 李 韭皆酸이라 肺色白하니 宜食苦하니 小麥 羊肉 杏 薤皆苦라 脾色黃하니 宜食咸하니 大豆 豕肉 栗 藿皆咸이라 腎色黑하니 宜食辛하니 黃藜 雞肉 桃 蔥皆辛이라” 고 하였다. 王好古의 飲食과 五臟相宜理論의 根源은 『內經』의 ‘五味五色所生’ 과 ‘五臟所宜’ 라는 學說이고 이는 飲食五味와 五臟之間에 密切한 聯系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런 需要는 限度가 있는 것이고 만약 限度를 초과하게 되면 ‘五傷’ 과 ‘五走’ 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多食咸하면 則脈凝澀而變色이라” 한다고 하였고 이것은 “咸走血하니 血病毋多食咸이라” 고 하며 心主血하고 그 華는 面에 있으므로 多食하면 心を 損傷하고 心氣가 衰弱해지며 血行이 障礙가 발생되어 血液이 凝澀하게 되고 脈道가 不通하여 血이 面을 不榮하게 되므로 面에 無華하게 된다. 따라서 飲食은 適度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王好古가 論한 食療도 治病過程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重要한 環節이고 道理가 있는 것이다.

2. 仲景의 學術을 發揚함

王好古는 仲景을 아주 敬慕하였다. 그는 『此事難知·序』에서 “予讀醫書幾十載矣에 所仰慕者는 仲景一書爲尤焉이라” 고 하였다. 丹波元胤은 『中國醫籍考』에 王

好古는 『傷寒辨惑論』과 『仲景一集』 등 책을 저술하였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王好古는 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많이 研究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王好古가 創立한 ‘陰證學說’은 즉 『傷寒論』의 三陰證治의 不足한 점을 보충한 것이다. 王好古가 仲景의 學術을 연구한 방법은 一般 醫家の 條文에 따라 注釋한 것과 달리 實踐을 토대로 學術의 精華를 闡發한 것이며 不足한 면을 보충하고 자신의 견해도 밝혔으며 仲景의 學術을 發揚하는데 많은 貢獻을 하였다.

1) 傷寒과 雜病을 合一함

王好古는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서로 貫通되어 있으며 그중의 方劑는 傷寒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雜病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임상에서 傷寒과 雜病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醫壘元戎』에서 專門의으로 ‘傷寒雜病分二科’를 論할 때 “世之治傷寒有法하고 療雜病有方하니 是則是矣로대 然이나 猶未也라 吾謂治雜病亦有法하고 療傷寒亦有方이라하니 方即法也오 法即方也니 豈有異乎잇가 要當全識部分經絡表裏臟腑豈有二哉리오 以其後世才智之不及古也니 所以分傷寒雜證爲二門이라 故有長於此而短於彼者하고 亦有長於彼而短於此者하니 逮夫國家取士分科니 爲此宜乎잇가 愈學而愈陋하고 愈專而愈粗也니 試以傷寒雜病二科論之하면 傷寒從外而之內者니 法當先治外而後治內오 雜病從內而之外者니 法當先治內 而後治外라 至於中外不相及則治主病하얀 其方法一也니 亦何必分之爲二哉리오 大抵雜病之外不裏乎表하고 傷寒之內不離乎裏하니 表則汗하고 裏則下하고 中則和하니 不易之法也라 劑之寒熱濕涼은 在其中矣라”고 論하였다. 따라서 그는 『傷寒論』六經辨證은 外感傷寒에 適用할 뿐만 아니라 內傷雜病에도 適用한다고 主張하였다. 『湯液本草』序에 “至予金匱組方하얀 湯液外定爲常制하니 凡可用者는 皆雜附之라 或以傷寒之劑改治雜病하면 或以權宜之料更療常疾이라.”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醫壘元戎』에 六經을 綱領으로 삼고 方劑를 目으로 하여 『傷寒論』, 『金匱要略』, 『活人書』, 『易簡方』 등 書中의 關聯된 症候와 方藥을 合並시켜 討論하였고 그 내용에는 傷寒, 雜病, 兒, 婦, 瘡腫, 目疾 등 諸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太陽證에 『傷寒論』의 麻黃湯과 桂枝湯을 羅列한 외에 『金匱要略』의 虛勞를 치료하는 小建中湯, 黃芪建中湯, 黃芪桂枝五物湯, 桂枝加龍骨牡蠣湯을 수록하였고, 또한 『易簡方』의 建中湯, 當歸建中湯, 杏子湯, 芎辛湯, 胃風湯 등도 보충하였으며, 『活人書』中의 陽旦湯, 解肌湯, 麻黃葛根蔥鼓湯, 知母麻黃湯, 獨活散, 敗毒散 등과 潔古의 大羌活湯, 자신이 발명한 法白朮湯 등등을 보충하였다. 王好古의 이런 傷寒과

雜病을 하나로 合한 觀點은 六經辨證의 範圍를 확대하였고 後人에 대하여 큰 影響을 주었다. 예를 들면 清代 柯琴은 『傷寒論翼·全論大法第一』에서 “仲景約法은 能令百病兼六經하고 而不能逃六經之外라”고 하였다.

2) 傷寒의 根源을 探討함

王好古는 傷寒의 病因에 대하여 有益한 探討를 하였다. 그는 『醫壘元戎』과 『此事難知』란 두 책에 모두 「傷寒之源」이란 專篇을 정하여 討論을 하였다. 王好古는 『內經』의 “冬傷於寒하면 春必病溫이라”는 要旨를 근거로 하여 ‘內傷’(人本氣虛)은 傷寒이 發病하는 關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冬傷於寒하면 春必溫病이라 蓋因房室勞傷與辛苦之人은 腠理開泄하야 少陰不藏하니 腎水涸竭而得之니 無水則春木無以發生이라 故爲溫病이라 至長夏之時하얀 時強木長하니 因絕水之源이 無以滋化라 故爲大熱病也라 傷寒之源如此라”고 하였다. 이는 腎虛가 傷寒의 病因中에서의 어떠한 作用을 하는 重要性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그는 東垣을 師承하여 脾胃內傷이 傷寒의 發病에서도 重要的 作用을 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飲食不節者는 或饑或飽 或冷或硬이라 居處不時는 或寒或通 或勞或逸이라 陰陽太過者는 隱相易之하야 形狀或一或二라 喜怒不常者는 須心腹之逆滿하야 或隔或痞하니 此皆傷於陰者也라 舊有冬伏之寒邪在經하고 春夏之復傷而作하니 傷於陽者則邪氣外並하고 傷於陰者則邪氣內並하니 新傷引出舊傷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此傷寒之源이니 非天之傷人이오 乃人自傷也라”고 하였으며 이는 內因이 傷寒의 發病中에서의 重要性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傷寒의 病因을 論述할 때 王好古는 外邪中의 霧露雨濕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시하였는데 霧露雨濕은 濁邪에 속하고 口鼻를 통하여 人體에 침입되며 脾胃의 陽氣를 손상하여 傷寒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는 “霜降已後 春分已前에 中霧露者는 皆爲傷寒也라”고 하였다. 그중 王好古의 所謂 外邪의 侵入途徑은 口鼻라는 觀點은 後世 溫病學派에서 提出한 “溫邪從口鼻而入”의 觀點에 크게 啟示해 주었다.

3) 六經證治를 補充함

仲景이 『傷寒論』의 原書에서 所立한 여러 證治中에 ‘六經病提綱’ 등을 포함하여 너무 簡單하고 상세하지 못한 곳이 있다. 따라서 王好古는 臨床의 實際狀況에 근거하여 이에 대하여 補充을 하였다. 예를 들면 『傷寒論』의 原書中 陽明病에 대하여 ‘胃家實’이라는 提綱을 세웠는데 이것은 陽明腑證을 위하여 설정한 것

이며 陽明經證에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王好古는 『此事難知』에 “身熱 目疼 鼻乾 不得臥 不惡風寒而自汗하고 或惡熱하고 脈尺寸俱長이라” 고 여러 症狀을 보충하였다. 또한 少陽經에 대하여 仲景은 口苦 咽乾 目眩을 提綱으로 삼고 王好古는 實踐을 통하여 以上の 세 증상은 단지 少陽經의 一般的인 症狀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胸脇痛 往來寒熱而嘔 或咳而耳聾 脈尺寸俱弦이라는 主證을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실제에 더욱 적합한 것이다. 또한 『傷寒論』의 無方有證의 條文에 대하여 補充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324條에 “少陰病에 飲食入口則吐하니 心中溫溫欲吐하야 復不能吐라 始得之에 手足寒하고 脈弦遲者는 此胸中寒實이니 不可下也오 當吐之라” 고 하였다. 이 經文에서 仲景은 方劑를 제시하지 않았고 王好古는 生薑半夏湯을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이 方劑는 『金匱』에 “胸中似喘不喘하고 似嘔不嘔하고 似噦不噦하고 徹心中憤憤然無奈者라” 는 병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밝혀 있었고 兩者의 病機는 유사하며 모두 邪留胸中이므로 同治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그는 內傷과 外感を 모두 六經에 따라 辨證施治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雜病들을 六經에 포함시켜 辨證論治하였다. 예를 들어 虛勞裏急, 榮衛不和의 黃芪健中湯證과 十全大補湯證은 모두 太陽經에 귀납시켰고, 痰飲內溢 혹은 津液內傷의 五飲湯證과 增損理中丸證은 陽明經에 귀납시켰고, 痰飲이 멎쳐 있어 발열하는 參蘇飲證은 少陽經에 귀납시켰고, 理中湯加減證과 平胃散加減證은 太陰經에 귀납시켰고, 八物定志丸證과 天麻丸證은 少陰經에 귀납시켰고, 四物湯과 八物湯證은 厥陰經에 귀납시켰다. 王好古의 이런 사상은 후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柯琴이 『傷寒論翼』에서 “仲景約法은 能合百病하고 兼該於六經하고 而不能逃於六經之外라” 라 한 것이 그 분명한 예이다.

4) 傷寒의 ‘禁忌’ 를 강조함

王好古는 『傷寒論』의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등 ‘三禁’ 에 대하여 아주 중요시하였다. 그는 “不可汗吐一條三法은 利害非輕하니 前人多列經後라 大抵醫之失은 只在先藥하니 藥之錯則變生이라 若汗下不差하면 則永無亡陽하니 生黃 畜血 結胸 痞氣及下利洞泄 協熱利 痙急 虛勞等證生矣니 以其如此라 故錄大禁忌於前하야 使醫者當疾之初不犯也라” 고 하였다. 따라서 『醫壘元戎』에 單獨의 專篇을 설정하고 『傷寒論』의 不可汗, 不可吐, 不可下 등 ‘禁忌’ 와 관련이 있는 條文들을 羅列하여 六經病證의 內容 앞에 設置하여 閱讀하기 쉽게 볼 수 있고 잊지 않게 만들었다.

다. 그리고 王好古는 所謂 ‘三忌’ (時忌, 藥忌, 病忌) 를 補充하였다. 時忌는 “春夏不宜桂枝하고 秋冬不宜麻黃이라” 는 것이고, 藥忌는 “已汗者不得再發하고 已利者不得再泄氣라” 는 것이며, 病忌는 “虛人不宜用涼하고 實人不宜用熱하니 其所犯之劑는 當從緩而輕이라” 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의 經驗이고 臨床에서 確실한 實用價値가 있다.

5) 仲景의 奧義를 發揮함

仲景의 著作中の 어떤 條文은 深奧하여 讀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진지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따라서 王好古는 특별히 『此事難知』에 問答의 形式으로 이런 내용들은 闡發하였다. 이 책에는 王好古가 『傷寒論』을 연구한 讀書心得이 數十개가 있으며 예를 들면 ‘兩感之邪從何道而入’, ‘辨傷寒言足經不言手經’, ‘六經傳足傳手經則愈’ 등이 있다. 王好古는 兩感은 太陽과 少陰이 俱病한 것이고, 太陽은 屬府이고 邪氣가 背俞로 侵入하고, 少陰은 屬臟이고 邪氣는 鼻息을 통하여 侵入된다고 하였다. 鼻氣가 通天하므로 寒邪와 같은 無形之氣가 鼻를 통하여 侵入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發汗에 桂枝湯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王好古는 桂枝는 發汗之劑가 아니고 榮衛和하여 自然的으로 汗出하게 되는 것이며 ‘發’ 字는 ‘出’ 字로 理解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煩躁證에 대하여 비록 懊憹不得眠한 증상이 있지만 氣血心腎의 區別이 있다고 하였다. 陽明病에 대하여 ‘胃中有燥屎五六枚’ 의 ‘胃中’ 이란 두 字는 잘못되었다고 하며 經言의 ‘穀消水去形亡’ 이란 것은 燥屎가 大腸이 있는 것이지 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論點은 모두 독특한 견해이다. 그리고 ‘尋衣撮空’ 은 誤治後의 危症이고 王好古는 肝熱風淫未疾하였기에 手로 尋衣撮空한다고 하였고, 또한 上焦에 有疾하면 心肺에 受熱하여 역시 尋衣撮空하게 되며 그가 心, 肺, 肝 등 三臟을 解析하는 것은 外感病과 雜病辨證에 모두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脘腹痛이 三陰經의 共同한 症狀이라는 것에 대하여 王好古는 中脘痛은 太陰에 속하고, 臍腹部痛은 少陰에 속하고, 少腹痛과 小腹痛은 厥陰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部位에 따라 증상을 解析한 것으로 臨床辨證에 指導적 역할이 있다.

6) 化裁方劑에 靈活함

王好古는 仲景의 方劑에 대하여 가감하여 잘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理中湯은 『傷寒論』에 오직 8個의 加減法이 있지만 臨床運用에서 不足하다고 느껴 王好古

는 『醫壘元戎』에 20餘個의 加減法을 보충하였다. 예를 들면 傷寒 體虛結胸, 心隔高起證에 治療에 있어서 理中湯에 桔梗과 枳殼을 가하며, 泄瀉者에 대하여 理中湯에 橘紅, 茯苓을 各一兩 가하여 治療하고, 漉泄不已者는 理中湯에 橘紅, 茯苓, 附子를 各一兩 가하여 治療한다고 하였다. 이런 靈活하게 變通하여 經方을 사용함으로써 傷寒方의 運用範圍를 넓혀었다. 그리고 王好古는 仲景의 組方하는 뜻을 파악하고 雜病 治療에도 靈活하게 傷寒方을 운용하였다. 예를 들면 『此事難知』의 「酒毒小便赤澀宣五苓散」이란 篇에서 酒毒은 濕熱之邪가 膀胱에 蘊結하여 小便이 淋漓하고 赤澀不利하게 된 것이며 五苓散으로 清濕熱과 利小便하여 酒毒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밝혀야 할 것은 王好古의 學術觀點과 成就是 多方面的이고 以上 내용은 단지 그중의 중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소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王好古之學의 全貌를 알기 위해서는 讀者들이 王好古의 醫學全書를 더욱 전면적으로 상세하게 연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金元時代に 陰證學說을 創案한 王好古의 藥物理論 및 傷寒理論에 대하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王好古는 張元素와 李東垣을 師事하여 金元時代 藥物理學의 發展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으로 그의 藥物理論을 요약하면 用藥法則에 대해 總結하였고, 歸經學說을 豊富하게 하였고, 藥效의 新義를 發明하였고, 服藥方法 및 飲食調養을 중요시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王好古의 傷寒理論을 요약하면 傷寒과 雜病을 合一하였고, 傷寒의 根源을 探討하였고, 傷寒 뿐만 아니라 雜病에 있어서도 六經辨證를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고, 傷寒의 ‘禁忌’를 더욱 강조하였고, 化裁方劑에 靈活하였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王好古의 藥物理論은 明代의 李時珍의 本草綱目에 모두 수록되어 그의 藥物理論은 李時珍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었다.

Ⅳ. 참고문헌

1.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王好古, 陰證略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2. 洪元植 尹暢烈, 新編中國醫學史, 大田, 周珉出版社, 2004.
3. 胡國臣,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4.
4. 金達鎬 李鍾馨, 補注注解黃帝內經素問, 서울, 醫聖堂, 2001.